



새로 읽은 향가

저자 (Authors)	정열모
출처 (Source)	한글 12(1) , 1947.3, 394-404(11 pages) HAN-GEUL 12(1) , 1947.3, 394-404(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글학회 The Korean Languag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52465
APA Style	정열모 (1947). 새로 읽은 향가. 한글, 12(1), 394-40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4 16: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새로 읽은 향가(鄉歌)

백수 정 일 모

얼마 안되는 향가이지마는, 알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안 사람은 적었으리라. 특별히 외국인이면서 소창 권재박사가 견해를 알리고 해줬고, 이어서 양 주동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이 공연히 맘이 편하지 못하여 이 방면에 잠실할 기회가 없다가 이번 여름에 대종교 총본사(大隆敎 總本司)에서 국학 강좌를 열게 되자, 좀 새 방향을 걸어가 볼까 하는 생각에 단생 집으로 향가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소창박사 것과 주동님 것을 보아 좋은-쪽을 취하되마 한 것이 손을 대고 보니 의차에 장단이 있어 꼭 출타고 할 것이 적은 듯하였다. 그래서 서투르게 내 생각대로 읽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읽어 본 것이 이것이다. 물론 소창이 아님이만큼 띄웠는 잘못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여기에 발표하는 뜻은 여 좋은 읽음이 나오기를 기약하는 마음에서이다.

1. 모 랑 가 (慕郎歌)

독 오 실

가는 불타리미 모든것 에 울음으로 시름아 겨오넬 활기사는 크시 해로남
 去隱春皆埋米 毛冬居叱沙 哭屋戶以憂音阿冬管乃叱 好支賜烏隱貞史 年數就

저기 너제 눈에 들었 칠새 이에만나오기엇지저오알이 망여 그릴 따미 너
 昔隨支行齊 目經聽於尸七史 伊衣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部也 慕理尸心未行

울 길 쪽 팔거리해 잘 밤 의 알이
 乎尸道尸 蓬次叱巷中 宿尸夜音有叱下是

가는 문이 달려 듯 빠르게 보고 듣는 것에 하음없는 눈물이 나아
 구슬큰 마음 들 곳 없네. 겨우내 홀모하면 양자 어원지 해로 넘으니
 눈에 어더 삼삼한지고, 이에 만나움기 바란들 어찌 미치리. 임이어 그
 리운 맘에 가는 길, 쪽팔거리처럼 쓸쓸한하여 밤따라 잠 못 이뤄하네

2. 헌 화 가 (獻花歌)

조 치는 함은이

부른 바호가 희 잡은 손은 압소노호시고 나홀아니꽃갈일이사든 꽃갈 것 가 드미
業布岩乎邊希 執着乎手 毋牛放 致遺 吾將不常惜焉伊賜等 花將折叱可 獻

오리음다
乎理音如

크나큰 바위 가에 알기운 꽃은 갈기도 해라. 소치는 이내 몸을 누
는다 아니하실진대 고베 잡은 손 놓고 꽃을 쥐어 드리겠습니다.

3. 안 민 가 (安民歌)

송 담 스 님

군은아비요 신은다아살 어머니 민은비칠 한아레브라살 지 민아달알 알고덕
君隱父也 氏隱 愛賜戶母史也 民爲狂戶恨阿孩古爲賜戶知 民是愛戶知古如

물 크흔생으로기습 물생이홀며 기다사라파 니나홀바리고저 어의 가어
窟理叱大聘生以支所音 物生此聘喰罷支 治良羅 此地聘喰罷只 於多是去於

덕할 지 나라아기지니기알고다
丁爲戶知 國 親支持以支知古如

임금은 아비아침이요. 벼슬아치는 알뜰한 어머니침이요, 백성은 짓맞
은 아이라고 할는지, 백성이 가이없도다. 굶고 큰 생이여니 궁생
이를 먹어 다스리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할지, 나라아기
백성 보호하기를 알지어다.

4. 기파랑을 기리는 노래

송 담 스 님

담 송 스 님

열어버치며 풀나갈란 딸 이 흰구름조처머가논안기려 물이파름나락에안 기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繼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汀理也中 音

망서죽 아사술아 일오나리 버락회 땅에지니가사은 망미갓 풀꽃내려저
郎交稅史是史藪邪 逸鳥川理叱積惡希 郎也持以支賜烏隱 心未際叱聘逐內良齊

아야 갓 가지높기조라 눈이문 이을 화편에
阿耶 栢史叱棧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戶花判也

얼어떨러때-드러나 맑은 달이, 천구를 훑아 떠가는 방황에, 물이 파
달 강에는 기러막의 얼굴인가 싶다. 일오강 배방이세 입의 가지
고 있던 심회를 훑아 가노라. 아아 잣나무가지 높게 자라나 눈도
이슬게 못하는 회망님이여.

5. 처 용 가 (處容歌)

처 용

동경 맑은 달에 밤잠도 노니다가 물어사자러끼고곤 갈오이것일미마 무를은내
東京明耀海處 寢入伊徒行如可 入良沙慶 美見尼 脚烏伊因是良祿 二將隱
미엇 그 무를은거기 해인고 본의 내해이다마인 앓 이물어막할 고
下於叱古 二將隱離支下游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牽叱良乙何如爲運古

동경 달 맑은 달에 늦도록 잔배다가, 물어와 자러를 보건대 다터
가 갓일러다. 맑은 내 배어니와 맑은 뒤 해인고, 본디 내 해이다마
는 미엇진줄 아리락미요.

6. 서 용 요 (誓童謠)

선화공주님은 밤잠지없이 두고 서동방을 밤의물 (알) 안고 간다
善化公主主寢 他童只嫌良置古 暮童房乙-夜矣渠 (想) 抱遣去如

선화공주님은 서동서방을 남몰래 걸어놓고 밤이면 안고간다.

7. 맹 아 득 안 가 (盲兒得安歌)

한기러머 회명

무를을고부러머 무 습 고 기내라 천수권을 전애안 길 기삼을을 무에오라
膝勝古 舌餘 二尸掌骨毛乎支內良 干手觀音叱前良中 所以支白屋尸處內乎多
크론손 크론눈을 원부러머 노라원부러를 제아 기부부 안은 내라 원부러사는사 이
千隱手叱千隱目勝 一奪下叱放一奪勝 除惡支二于萬隱吾難 一奪沙隱賜以
이 지내오 드라 아아아 나에기치기할 돈 노을 너 손은 자비애불위에
古 只內乎叱奪邪 阿邪也 吾良遣知支賜尸奪勝 故多矣用屋尸慈慈也擬古

무를을 고부러머 무 손목 내러 원수관을 앓애마 비는 말함을 두나
이다. 원가져 손과 원가져 눈을 일체 증 생에게 송으로서 일체
생에게, 제아기는 일체 생명이 다 내몸이란 가운데 하나이다.

일체 중생이, 이는 사이에 끼어 사는 것이외다. 아아 다대게, 끼쳐
푸시는 것은 흙을 떠 쓰은 자비의 근본이 옳시다.

8. 풍요 (風謔)

송상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시름도 보되 보되 시름도 보되 보되 공덕도 다 팔 온다
來如來如來如 來如 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徒叱如良來如

온다 온다 회도 걱정이 드로 많다. 걱정이 많자 왜 문득, 왜 회
없이 할 공덕 닦으며 오는 것이다.

9. 입장의 파계를 강하는 노래

장곡서

달라지여 서방님정가사리고 무량수불전에 의니고을 다가가삼고사서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道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 多可支白遣賜立
다질집산 존네바타기 무슨모도고 조삼아 원왕생원 왕생술:그번사팔잇다삼고사
響音深史羅象衣卷仰支 兩手無力少乎白良 願往生願往生 墓人有如白遣賜
서 아아 이몸 남겨두고 사십팔대천이부고사서
立 阿邪 此身遣也遣遣 四十八願成 遣賜去(立).

달아 이제 서방정르에나 가게 하시요. 무량수를 향해 뛰우힐 다 가
게 삼으시오. 서원 길으신 부처님께 바라기에 두손을 모두 쫓아 삼
오되 원왕생 원왕생을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삼으소서. 아아 이몸은
그냥 두고 사십 팔 대천 이부소서.

10. 도솔가 (兜率歌)

할명사

오늘이세산화 불다 귀부사 온 꽃아리는 고든 마음희명 구름이업지 밋류좌주
今日此矣散花精良 巴寶白乎際花良汝隱 直等心昔矣命 叱使以羅只 躡鞞座主
피서명
階立羅良

오늘 이 자리에서 삼천가를 불러 퍼붓는 것이 너는 끝은 마음의
사명을 받아 비록귀주를 모시게 하리라.

1. 제 망 매 가 (祭亡妹歌)

월 명 스 님

생사 길은 이애잇아매지훈이고 나는가네다말스도 몰다이드고가나넝 고 아
生死路難 此突有阿來次將伊遣 吾釋法內如歸陀都 毛如云道去內尼叱古 於
내가술이름비담에 이애저애찌리질 언라하 갈무리는가저애나고 가는 곳모도오
內飲祭耳蹟 風未 此突彼矣浮良落戶葉如 一尊隨杖良用古 去奴釋處毛手乎
리 아야 비라 칼애만나올비 길랏거기버리고다
리 아야 離離判良逢 吾善 道後良待是古如

생사의 길은 과연 무서운걸고, 나는 잡니다 한마디 말도 이를 새
없이 가란 말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
사귀처럼 한때거리 가지에 섰다가 가는데도 모르고 떨어지는구나
이야 죽어서 적에서 만날나는 도를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1. 해 성 가 (彗星歌)

용 천 스 님

나리선 물갯 진달과의논은 갯 돌림바라고 제릿 군드와 댜외불살안 가
荷理東戶汀叱 乾達樂矣遊鳥譚城叱勝良望良古 係理叱軍澄來叱多條 燒邪羅邊
에술아 삼화 외오홀모샤울 뜻고 달도달근니혜여가울 바에 걸 줄 별이바
出載耶 三花矣岳昔覓賜鳥戶閑古 月澄八切際數於將來戶婆衣 道戶掃戶星利望
나고 혜성애살불애사람이잇 다 아오 달아깨찌가잇 드라 이애엇푸려합
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 達阿羅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
스 미스 레잇 고
昔叱彗叱只有叱故

날새는 동쪽 끝과, 진달과의 노는 성곽을 침으로 알고 제리 같은
애늬의 군사도 왔다. 변방에서는 봉화를 사르는듯 새 희망이 굽간
산에 잔잔할 돌고, 달도 밝게 솟아 오르면 가는 길이나 쓸려는
듯한 이상한 별을 보고 혜성이니 살벌이디 하는 사람이 있다.
“아야” 달아깨 찌가지고 있더라. 이에 화광의 빛무리들은 방에 나

은 제리 장이 생긴 변 때문에 가려진 길을 넘우고 아니 가고 있는 것이다.

13. 패 관 가 (掛冠歌)

현사 신중

물 옮기 잦이 가을 아니의 옮기질 때 더어다 기네저신 은 처론 나 제개 이사
 物叱好支拍步 秋察尸不冬兩屋支隨米 汝於多支行齊致因隱 仰頓隱而矣改衣賜

은 의 에 달 이거멍나던 못자 년 풀앗 모래케기들기 죽 셋 바파
 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阿叱砂矣以支如支 自步沙叱望阿

나 누리도 것 잃은 리에
 乃 世理都 之叱逸烏懸第也 “後勿亡”

어려 옮기 잦아부가 가을도 아닌데 빛이 시드는구나, 너 어떻게 하였기에 처론 먼목이 깨졌는고, 달 그림자 내타 비친 못가의 흐르는 물에 셋기는 모래처럼 이 먼목 셋기를 바라나, 세상도 제용 잃어 신의 보르는 판세로다.

14. 우 적 가 (遇賊歌)

송 영 제

저 의 마져 웃 못말기 을른 날릴새 일요이 지나지고 일론 수머가고 보다
 自矣心米 自步毛達只 將來吞隱日遠鳥 逸□□遙出知道 今吞藏未去道省如

단 밍오는 파계주 제불웃 내어도 도마를 할게 이참게 사사 지나온조물날 물
 但非乎隱焉被□主 次弗□步內於都 還於尸朗也 此兵物叱沙 通乎好尸日 沙

에 너호르니 아아 오저기 단으 것 한은 선동은더늘기상길도은 이다
 也內呼拜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 潛淡隱安 支尙宅都乎隱以多

저의 맘이 의양과 다른게다. 출편 달이 멀어서 일찌기 지나 가고 하잖 것 없는 목숨이 가는가보다. 덩벼드는 파계주여 놀라운 것을 하더라도 나의 맘은 도리어 명랑하에. 이 먼목은 병장게 때문에 지나간 좋은 날을 물에 집어 넘다나, 너이들을 위하여 가졌은 일이다. 아아 오직 나머지 한은 너이들을 착한 사람 만들지 못함이나, 실상 착한 것이란 하고 보면 편안하기가 집보더 미한것이다.

15. 예 경 재 불 가 (禮敬諸佛歌)

고려 군어 스님

담의붓으로 그리운 부처앞에 깃대는 모란 법계꽃 소기이르거라 전전마
 心未筆留 慕呂乎隱佛禮前衣 拜乎隱身萬隱 法界毛叱所只至去良 塵塵馬
 락부처 갈여 팔팔다다드리삼은 법계좌산 부처 구세 다라에하삼계 아요
 洛佛體叱刹亦 刹刹每如蓮里白乎隱 法界滿陽隱佛體 九世盡良認爲白齊 跋日
 신어 의업 무의업 이렇사우저이사못 드마
 身語意業无放厭 此良夫作沙毛叱等耶

담의 붓으로 그리던 부처앞에 깃대는 들은 법계 물속 이르기까
 리를 하나 하나마다 부처의 절이요, 절마다 맞아들어 놓은, 법계에
 가득한 부처물 아홉대까지 예배 하옵세. 아아, 물과 달과 뜻의 세
 일이 괴멸(되코 없음) 없이 이렇게 사못 하여 가고 실다.

16. 칭 찬 여 래 가 (稱讚如來歌)

오늘 주리도애 나무불여삼손 리량대 무진번제 바달물 한입안안 솟나가라 전
 今日部伊冬衣 南无佛也白孫舌良衣 無盡辯才叱海等 一念羅中流出去良 塵
 진릿것 드러삼은 공덕 몸을대하삼았기 대우 만은덕바다를 간왕도루질이
 眞穢物叱遊呂白乎隱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際于萬隱德海將 開王冬留讚伊
 합제 아요 만드기일뎡 덕도 모도다라삼은 내헤
 白制 隔旬 必只一毛叱德檀 毛等盡良白乎隱乃兮

오늘 광생을 위하여 나무불을 녀짜은 혀에 무진번제의 바다물이 한
 입에전 솟아나거다. 진진 헛것에 들어모신 공덕 몸을 대하삼았기,
 매우 많은 덕바다를 간왕으로 칭찬하렸네, 아아 만드시 한머리의
 덕도 모두 다 말하렸네.

17. 광 수 등 양 가 (廣修供養歌)

고려 군어 스님

불가지자보 매 불전 들을고치만 다의 등집은스미요 등유는원바달이루거라 손
 火 條 歡 香 馬 何 弗 燈 乙 直 體 良 焉 多 衣 燈 灶 隱 須 彌 也 燈 油 隱 大 海 逸 留 去 耶 手
 은 법계꽃 바(색)기하머 손매다다법 공으로 법계좌산 부처 불불루뜻 공
 焉 法 界 毛 叱 巴 色 只 爲 捺 手 良 每 如 法 叱 供 乙 仰 法 界 滿 陽 仁 佛 體 佛 佛 用 物 叱 供

하살제 아야 밤공사 하나 이어이 바최승공에
爲白制 阿耶 法供沙叱多奈 伊於衣彼最勝供也

물집게 잡으매 부처알 등잔을 고치란다네. 물심지는 수미산 깔고 불
기름은 한마타 이루도타. 손은 법계 어디나 이트며, 손에마타 법의
공양으로 법계에, 충만한 부처께 하나하나 두루두루 이바지함세.
아오, 범공이사 작히나 많으리마는 여 리바 이것이 최승공이여.

18. 참 회 업 장 가 (懺悔業障歌)

고려 균여 스님

선도이타 보러안는 길을여바 지걸 누은 모 짝은 법계남으들옥기나논이 올스맛
顛倒邊耶 菩提向焉道乙迷波 造將來臥乎際惡寸際 法界餘音玉只出際伊咻叱如
기 모진버릇누은 삼업 정계스주루지너기내고자 오늘주비돈북 참회 심방
支 惡寸習落臥乎際三業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今日部頓部叱懺悔 十方

부처알고기사서 아오 중생계진아침 회 때제기타기질바리제
叱佛禱爾遣只賜立 “落句” 衆生界盡我懺悔 來際永良造物捨齊

까닭 모를 일이다. 보리에 향하는 길을 떠워하고, 죄 지은 악한
사람은 법계에 용납되지 못하니, 모진 버릇 만드느 진어의 심업
을 정제를 주로 지너어 지내고자 하노니 오늘 주비와 돈부의 참
회를 심방부처는 알고 계시소서. 아오, 중생계에서 나의 참회를 마
하면 미래에 영원히 지질이 없으리라.

19. 수 회 공 덕 가 (隨喜功德歌)

고려 균여 스님

며오 동체스인기 다사려차지코곤 부처중생못 소기 나희몸아닌 담 잇할아로
遂悟同體叱緣起叱理良等只見根 佛伊衆生毛叱所只 吾衣身不喻仁人皆有叱下尼

와 살 온돈부스 나희와 존정 일사 리마 락남이업 곤 어내사달의선통불사 아너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得賜伊馬落人米無叱昆 於內人 衣善懷等沙 不

도깃보물 두오터스가 아오 이때 리가 비든 절루스며 음이르도올가
乞寶好尸 謹乎理叱憑 “後句” 伊羅擬可行等 嫉妬叱心管至刀來去

미오가 동체 인 연기를 따스리 찾아 보건대, 부처와 중생이 모로
며 나희 몸 아닌, 남이탄 것이 있을가보냐. 수행할 것은 돈부인

나의 수행할 것이로다. 수행하여 성과를 얻는 사람마다 그것은 남
아 가지어니, 어느 사람의 선입을 아녀 기꺼움을 둘 수 있으랴. 아
아, 이렇게 비겨 행할진대 질무하는 마음만을 날 수 있으랴.

20. 청전법륜가 (請轉法輪歌)

고려 균의 스님

저이들은 법계 모질 불회아회 나는듯 나소라기 법부틀리함은 더라 무명토
彼仍反隱 法界惡之叱佛會阿希 吾焉頓叱進良只 法雨乞乞白乎叱等耶 無明土

깊이 무다 빈터일무지개 배네 신아모부길은 중생 바를누기사은어 아오
深以埋多 煩惱熱留煎將來出米 善芽毛多長乙隱 衆生叱田乙潤只沙菁也 “後實”

보리 여름을 풀은 작일발근가을 바치여
菩提叱菓菁爲乙反隱 覽月明斤秋察羅波處也

저이들은 법계의 모진 부처 아이라 나는 듯이 착한 길로 나아가기 위
하여 법의 비를 배워라고 입일러라. 무명의 흙으로 깊이 덮고 빈
터의 갈로 지저거배 모든 착한 싹이 자라는 것은 법의 비로 중
생의 땅을 적셔 준 까닭일러라. “아아” 보리의 열매 익는 들은
곧 작일이 맑은 가을 팔일러라.

21. 청불주세가 (請佛住世歌)

고려 균의 스님

플부지 플부 화연다워산 비 손슬보 비오 땅이 누러가은지르뵈함오더 쉼
拈佛體 必于化緣盡動賜應乃 手乙復非時良爾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聽留

아침우안밤에안저살푸러 아타시 라 이지다이하개 길 비진무리래서러려 아
朝于 萬夜未向屋賜尸朋 知良是尸也 伊知皆矣爲未 道尸迷反群良哀呂舌 “落

오” 우럭담 풀팔가든 글영아니로용하샤야표
旬” 吾里心香水清淨 佛影不冬應爲賜下呂

모든 부처는 반드시 화연이 다 동하였네. 손을 비벼어 밀어 올리
너 세상 가운데로 빛을 살피라. 새벽부터 오만 밤중까지 부처를 감
하고 앉는 벗들이 이러함을 알라. 이러하고 보니 길을 배반한 무
리만이 가엾도다. 아아 우리 반의 물이 맑은 담에야 부처 그림자
가 어찌 아니 비치어 주리.

22. 상수불학가 (常隨佛學歌)

고려 관어 스님

우리부처 다가는누리 隨가오살은. 난행고행 원을 나는든부. 조흔벗이살
我佛體 皆往焉世呂 修將來賜留隱 難行苦行叱願乙 吾焉頓部叱逐好友伊曹

다 모미다못파스라져더풀이 거대 명운 잘질 나이 때도 그리개 잘질 잘알리 풀
叱多 身廢 只碎 良 只 塵 伊 去 米 命 乙 施 好 尸 該 史 中 隱 然 叱 皆 好 尸 下 下 塵 皆

부처도 그리 하신 일 해 아으 받도 안는 맘해 아드나니도 빛부러기버져
佛體 隨 然 叱 爲 觀 隱 伊 留 兮 城 上 人 佛 道 向 隱 心 下 他 道 不 多 斜 良 只 行 齊

우리 부처가 모두 잘 세상을 맞고자 닦을 것은 난행 고행의 원을
이름이로세. 나는 돈부의 좋은 벗이기로 난행 고행을 하여 풀이 타
스러져 가루가 되나, 목숨을 아낄 연세이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잘
질 잘 알라. 여러 부처도 그리히 하신 일일세 어화 세상 자람
풀아 홀도 아는 맘으로 빛두든 다른 도를 닦을 수 있다.

23. 항순증생가 (恒順衆生歌)

고려 관어 스님

각수왕은 떠돌 불피해사들산 일타 때비 곧부부라기 아니도시들내을 더
覺樹王焉 迷火隱乙根中沙音題焉逸良 大悲叱水留潤良 只 不 舍 萎 玉 內 平 留 叱 等

라 법계거목 구물 구물 할 나부 동생 동사 넘넘 상승 무간 단 부처할 나이
耶 法界 居 得 丘 物 叱 丘 物 叱 爲 乙 吾 偈 同 生 同 死 念 念 相 續 無 間 斷 佛 體 爲 尸 如

경 못 떠라 아오 증생더늘날든 부처도 깃사 일 해
敬 叱 好 叱 給 耶 打 心 衆 生 安 爲 飛 等 佛 體 頓 叱 喜 賜 以 留 也

각수왕은 거침물 한머럭에서 살을 자는도다. 큰 자비의 물로 추기
기 때문에 시들지도 아니하며라. 법계에 가득 차서 구물구물할 나도
동생동사 하는터이다. 넘넘히 서로 이어 간만이 없이, 부처께 하듯이
공경하고 잘기며라. 아아 증생이 편안하면 부처도 기뻐하며라.

24. 보개회향가 (普皆廻向歌)

고려 관어 스님

플나외라손 일제선공. 돈부 도라기 증생 바라 해 머진우러어이제버져 부
皆吾衣修孫 一切善陵 頓部叱禮良 只 衆生叱海惡中 迷灰群无史福內去齊 佛

지 바다를 이루는날 한 광려다운 모깃잎부 밭광 질와 보라 에루그리하
體叱海等 咸留焉日尸慎 懷焉如乎仁羅寸葉置 決性叱地阿叱實良 爾留黎叱篤

사미라 야스 에라 손 부쳐도 나의몸이바남았 알도
事置耶 病吟 體爲白孫際佛體刀 吾衣身伊波人有叱下出

모든나(一切我)의 님은 일체선은 온부를 들며라. 중생바다 가운데
피어난 무미들 어떻게 깨울 것인고. 부처 바다를 이루는 날은 뒤
우천 악업도 범승집의 보배라. 에르부다 그라하미다. 아아 위하는
부쳐도 나의 몸이더, 달 남이 있을소냐.

25. 총 결 무 진 가 (總結無盡歌)

고려 굿이 스님

생계 더갈든 나의원 떠할남부인이마려여 중생 게 음 모 샷모를 원헤이
生界盡戶等經 吾次 嗚尸日置仁伊而也 衆生叱儘衣于音毛 際毛冬留願海伊

고 이가 지은이마리는 안을 파루신중길에 이마 보현 명원 또모부쳐 일이머
過 此如趣可伊羅行根 向乎仁所留善陵道也 伊波普賢行願 又都佛儘叱率伊羅

파 야스 보현 마음아우파 이루 여드라라사미리져
耶 阿耶 普賢叱心音阿于波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생계가 없어진다면 나의 원 다할 날도 가고 만다. 중생 깨우침도
가이 없는 원헤이라 이 같이 읊다고 평하면 향한 바가 바로 선한
권일세 어보소, 보현명원, 이 또한 부쳐일일세. 아아 보현 맘이 알
고 싶어, 이 방면으로 맘이 여플어 다른 일은 버리고 지고.

社 告

바음과 같이 支社를 新設하였습니다.
忠北 堤川邑 新百里 堤川支社 蒞穡末

조선어 학회 읽안

자 민 총 딱 지

값 40圓

★이 딱지는 한글의 글 자를 서로 맞추어 재미 있게 마련
한 흥미 갑이다.

서울 • 鐘路 崇文社 總販賣